

교회 주년의 복음화를 위해(3월-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영혼을 건지는 열심으로

어느 해안에서는 사람이 자주 익사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빈번한 익사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한 어느 젊은 이 몇 사람이 모여서 구조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전력했으며,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점점 익사사고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의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게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명구조작업을 위한 기부금이 전히기 시작했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곳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많아져서 사람들은 이곳에 인명구조센터를 아주 멋지게 지었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 그리고 이 멋진 건물 안에서는 온갖의 파티를 베푸는 횡수가 많아지게 시작했다. 인명구조센터는 점차 사교적인 모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결국 좋은 장비와 인력, 그리고 여건은 훨씬 개선되었지만, 익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가기 시작했다. 생명을 대한 순순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도과 장비 그리고 조직이 대신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도 전처럼 선뜻 나서서 파도에 자신을 던져 사람을 건지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었다.

교회 주년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각 교구별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혹시 영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상실한 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 땅에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생명의 마음을 베푸시도록 영혼을.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게 우리의 가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만물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날들을 보내보자!

교구별 전도지역 일정은 오른쪽 표와 같다.

월	교구별	전도지역	월	교구별	전도지역
3월	32구	역삼동	9월	82구	신도동
4월	42구	논현동		92구	잠실동
5월	52구	신사동	10월	102구	영등포
6월	162구	입산동		112구	영등포
	172구	성남동		142구	영등포
9월	122구	성남동	11월	122구	영등포
	22구	대치동		132구	포이동
8월	62구	도곡동		152구	수서동
	72구	개포동			

교역자 장로 기도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충현의 모든 교역자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인만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몸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3월 22일 (목) 18시-식사, 19시-기도회 장소: 베다니홀

신약 읽기

교회의 기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할 수난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예수께서는 수난 전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 하시고, 자신의 메시아적 본질과 구원사역을 정확히 간파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다. 교회가 세워진 탄식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복음전파에 온 힘을 쏟게 되었다. 메시아 신앙을 고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흠뻑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흠뻑한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면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공동체, 영전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참 기쁨의 공동체이다. (행 2:42-47)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라는 고백이 있는가? 구원의 간절한 고백이 있는가? 충현교회의 모습을 돌아본다. 교제와 기도, 경건과 나눔의 공동체인가? 예배하는 참 기쁨의 공동체인가? 주님께서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충현교회를 박복하여 세워 주실 것이다. 충현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충현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충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노경 목(목사, 17교구 지도)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간 강(2:21)

미국의 모든 성도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질문 너의 커다란 후손과 그 주년을 뛰노는 땅들, 아름답게 지어진 병정, 그리고 그 소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이다." 노인의 말에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땅위에 있는 것들뿐이군요! 당신이 저 위에 쌓아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는지 그 다스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이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한말 후 죽었고, 그의 자녀들은 재산 상속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이 오마하 한가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출근하는 딸이여를 바라보면 서 포켓주머니에서 휴대용 알람을 꺼내어 조금 들이켰다. 이내 음음이 쏟아졌고, 아버지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창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딸은 딸이 달려와서 그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밑에 정말 예쁜 꽃이 피어있어!" 그러나 곤한 채 빠진 아버지는 골짜기 밑에 있었다. 딸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갑자기 소녀의 아버지는 잠깐 놀라 황급히 일어나서 딸이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딸이여는 보이지 않았고, 이내 조금 떨어진 곳에 걸터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급히 밑으로 내려간 아버지는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딸이여를 발견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분별력 있는 딸이여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했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그에 의해 영토는 자꾸만 넓어지곤 갔다. 모든 백성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 부하들을 써서들이 데려내고 땅에 올라간 왕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시샘에 빠져들었다. 그는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죄를 저질렀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게서 이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사죄, 다녔었다.

만일 인간이 하늘나라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할 때, 그의 수고는 온통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뿐이다. 그런 이들은 결국 슬로모이 고백한 '헛되이 지낸' 시간을 보내고,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시간을 살아야 할뿐이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는 은혜로 양육하여 긴장감을 막아주고 세상의 소욕으로 이끌 때, 분명히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잃는 자국의 수렁으로 내몰고만 비극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또 한가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렸을 때, 마침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은 노력집하는 마귀에게 손쉽게 빼앗기 버릴 뿐이다.

칼리다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에 쏟으신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긴장감이 없을 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대신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든 율법의 대의에 유혹되고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는 공적생성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을 추구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었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 죄인인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값없이 대신 십자가에 찔리신 -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긴장감을 마귀에게 노략질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만일 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세상의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리를 추구하는 마귀를 향해, 점점 힘을 잃어 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자꾸만 세상에 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걸딘 걸딘 걸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긴장을 포기하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Two Masters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oday's message is part of Jesus' Sermon on the Mount. The Sermon on the Mount does not present the way of salvation but the way of righteous living for those who are in God's family. Jesus isn't addressing a general crowd; He is preaching to His disciples. As such, this message relates to believers. It is meant for us Christians. In concluding His remarks on the practice of kingdom life in relation to money, Jesus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v. 24). Jesus wants us to really understand that we can't serve God and mammon.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Leading up to this truth, that we can't serve two masters, Jesus talks about treasure. He tells us,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 (vs. 19-20). Here we find a don't and a do. Christians don't save treasures on earth. Christians do save treasures in heaven. Why?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v. 21). So now we understand that what we treasure is important because what we treasure determines where our heart is. If we treasure God, then our heart will be with God, but if we treasure something or someone else, then our heart will be with something or someone else. For we know that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All humans are servers. They either serve God or they serve mammon. No one can serve both. Christians serve God!

Interestingly, after discussing our heart, Jesus uses our eyes as

another example of how we practice what we believe. He explains,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so then if your eye is clear,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 is ba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If then the light that is in you is darkness, how great is the darkness (vs. 22-23)! When our spiritual eyes are clouded it affects our whole body, our whole outlook on everything! Whenever you look at something, like a car, house, or tree, or whenever you look at someone, like a family member, friend, or stranger, your eyes talk to your mind. If your eyes are bad, then they're going to talk to your mind about bad things that relate to mammon. Your thoughts about what you see will be seen in darkness. If your eyes are clear, then they're going to talk to your mind about good things that relate to God. Your thoughts about what you see will be seen in the light. In essence, wherever your eyes go your mind goes.

So, Jesus mentions our heart, eyes, and mind. He also mentions that we are servers under all conditions. No matter what, we are either servers of God or mammon. We either serve the living Creator or an object of our own creation, like wealth, honor, fame, or authority. All too often, in our society and the world in general, you find people wanting to be like other people. You'll see a dynamic Christian man or woman who serves the church well, has a prosperous business, good family, and nice clothes, cars, and house, and think to yourself that they're outstanding. You wish you could be like that person.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Jesus doesn't agree! What does Jesus say? He says you only need God's blessings, not your own mammon. You need what comes from the Bible and transforms your own heart, not the

outcome of someone else's blessing. All too often we look at another's blessings and idolize them. Our heart, eyes, and mind focus on the blessings and not the Blessed. We end up serving mammon instead of God.

Another example of how our heart, eyes, and mind can become entrenched in darkness is when start to want fame, fortune, and fancy. When we serve ourselves instead of God, we are serving mammon. Most people want to succeed in this earthly life, whether it's a believer's or unbeliever's society, people don't want to fail. We strive to do a good job at our occupation. Many people become experts in a given field or on a specific topic, and are asked to travel the globe to share their knowledge. Like Joseph, they have found success in abundance. Unfortunately, the hearts of all too many of these people want fame and wealth. Jesus tells u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Mt. 22:37). Do you really love God or do you love your own home, wealth, or reputation? Many times our outside expressions talk of God, God, God, but our inside speaks of a reality of our own mammon. It's like half of you belongs to God and the other half belongs to yourself. You come across as a really happening Christian, with people thinking you are good. Let me tell you - you're not! You're serving yourself, not God. God never compromises. God simply says to you,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other. Nor My praise to graven image" (Isa. 42:8). Do you live like that? Or do you have one foot in and one foot out, thinking you've got it made? Listen to these words,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will act; For how can My

name be profaned? And My glory I will not give to another" (Isa. 48:11). Why is it that in your everyday life that you share God's glory, taking some for yourself? This is idolatry. When you do this, you think you're great. And why is it that so many people respect such persons?

My dear friends, your master is the Creator or your own creation. It is either the glorious personal God or miserable things related to money. Worship or idolatry. If you love material blessings then you will hate the giver of those blessings. If you're devoted to attaining material wealth then you will despise the giver of that wealth. "Therefore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unrighteous mammon, who will entrust the true riches to you (Lk. 16:11)? Don't be stupid. All earthly material things are unrighteous. You're given these resources to use for God's glory, so use them for that purpose. If you do well, God will give you more to do. "Now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were listening to all these things and were scoffing at Him. And He said to them, 'You are those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sight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for that which is highly esteem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the sight of God' (Lk. 16:14-15). God knows your heart. The Pharisees really laughed at Jesus. But God knew the Pharisees, He knew that they talked of Him but inside they were bad. God hates that.

Let's have one Master. Don't try to be wise and earthly, instead be wise and heavenly and seek only one Master, Jesus Christ. Look at Jesus. He gave all His life and His heart. Did He leave anything on the cross? No, He gave everything! 



김성관 목사

두 주인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대한 천국백성의 실천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위해 의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물과 관계에 있어서 천국생활의 실천에 대한 신언인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24절).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 전례에 따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쥐와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쥐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19-20).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보물을 축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왜 그러할까? 21절이 설명합니다. “네 보물은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21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지만, 재물이나 사람을 보배롭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가득 채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념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모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

나심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

홍미롭게도 우리의 마음에 논쟁이 벌어지게 하신 후에, 예수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예를 들기 위해 우리의 눈을 사용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네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열매나 하겠느니라”(22,23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물질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영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재물과 관계된 약한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며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영적인 눈은 빛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 밝은 눈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는 주인의 누구이든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재물 중, 둘 중의 하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부와 명예 명성과 권세까지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뒤흔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여 좋은 가정, 멋진 복귀와 자동차, 그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드러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처럼 될 것을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며, 자기 소유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 뿐, 어떤 사람이나 기타 다른 축복의 결과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자주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것들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마음과 눈, 그리고 생각은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본성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예는 명예와 행운과 환상적인 삶을 원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곧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며 성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좋은 업무를 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분야나 특정한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며, 그러한 직책을 서로 소유하기 위해 출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요새처럼 그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명성과 부에 대한 추구가 가득한 것을 보게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과 재산, 사람들의 평판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입술과 말로는 자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주인입니다. 이것은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재물에 속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시니 내 이름이라 나는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여러분은 그와 같이 살아야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불로고 있을 생각으로 한발 주지 않으면 한발은 세상에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

나하리라”(사 48:11). 왜 스스로 무엇인가를 취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한 편 - 하나님을 택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어떤 것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재물에 관련된 보잘것 없는 것이 주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물질적 축복을 좋아한다면, 불필요이 그러한 축복을 주신 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러한 부요를 주시는 분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눅 16:11).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불의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거나 주어진 것이며, 여러분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다량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 중에 보람을 받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의 마음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4-15).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내면에는 악한 것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십시오. 세상적인 현명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신성한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한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심판까지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갇히신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2001 충현교회 선교사 기도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충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소개한다.

선교사들은 1. 단기선교사 2. 단기평신도 선교사 3. 협력선교사 4. 평신도선교사로 구분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보안상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II 단기 평신도 선교사

7. 이병하 선교사 (방글라데시)

1.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 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 사역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모운전해 질 수 있도록



8. 강서영 선교사 (방글라데시)

1. 매일 깊이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2.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3. 1년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9. 정현주 선교사 (방글라데시)

1. 매일매일 성령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2. 하나님을 사랑하고 방글라데시에서 만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3.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III 협력 선교사

1. 강기영 선교사 (아프리카 R국)

1. 각 유치원 교사들과 주일 학교 교사들이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교육 철학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 그래서 어린이들이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도록
3. 유치원 교제, 교구를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도록
4.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매년 준비하는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6월 중에 있을)
5. 의료봉사를 할 때에 사랑으로 임하며, 또한 지혜를 주시도록
6.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2. 허요셉 선교사 (아프리카 A국)

1.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동력이 있는 자역자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 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 이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들어 쓰신 현지인 자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3. 이 땅에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그곳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IV 평신도 선교사

1. 이병석 선교사 (아프리카 C국)

1.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2. 삼국인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삼국인 선교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3. 어려운 회사 업무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4. 하나님께서 맡겨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도록



2. 강영남 선교사 (탄자니아)

1. 카르메 테크니컬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트레인팅 센터를 통해 학생들(현재 6명)이 기술을 잘 배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2. 이슬람권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신영초7, 태영초6, 윤영초4) 믿음을 가운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3. 집 가까이 있는 이슬람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에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학생이 나오도록



전도 지상평지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5)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괜찮아요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예화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에 보리씨가 유일한 간식인 시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맛이 좋은 비스킷이나 사탕을 맛볼 때에 보리떡을 멀리하게 되었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선생님도 모르게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으시면 그와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6) 시간이 없어서 믿을 수 없어요.

이와같은 질문은 특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분자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살아난 항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지요. 제가 지금 선생님께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면,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지요. 이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태어났게 어머니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 줄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듯이, 천국과 지옥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천국을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현 현 민 목사 - 전도위원회 지도)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 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을 요망하고 있다. (서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교적번호	이름	교구	성별	생년월일	파송기관	사역지	사역기간	연락처

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훈련과정

1. 평신도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31일~6월 23일
교 육 비: 5만 원(분할 납부 가능)
단기선교파송 대상국:
아프리카, 몽골, C.I.S,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문 이: 선교위원회(567-9544, gwjw@unitel.co.kr)

2.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모집대상: LMTC 수료자
제출서류: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국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3. LMTC 어학강의

LMTC 교육과정 가운데 ‘어학훈련과정’ 이 다음과 같이 개설됩니다.

시간 / 장소: 매주 토요일 17:30 / 배다나홀
강사: 영어 - 하이다(原語民)
스리랑카어 - 가미나(原語民)
몽골어 - 쑤다(原語民)
아랍어 - 이성욱 전도사
러시아어 - 송효한 전도사

지난 12일 경멸일 단기 평신도 선교사가 아프리카 R국으로 재파송 받아 출국했다.

푸르른 이야기·청년1부

청년1부는 2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예수청년 땅끝까지'라는 주제 아래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일에는 찬양과 이홍성 목사님의 주재함의, 기도회로 진행되었고, 24일은 공동제헌, 25일은 선교보고대회로 2000년 단기선교회를 마치고 귀국한 여섯 분의 선교사들과의 화합회와 청년1부 선교활동의 현수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합회를 통한 여섯 분의 단기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현장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합회에는 진행을 맡은 8국의 오경진 단기선교사와 이수경, 한정은 단기선교사, R국의 권영일, 박수인 단기선교사, 1국의 이순주 단기선교사가 참가하였습니다.

단기·평신도·선교사와 함 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과 물질과 정성으로 후원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경향을 바탕으로 선교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선교지로 나가기 했는지? 왜 나가고 싶었는지?

박수인 저는 국민학교 때 이미 선교사가 되기로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부림을 받으면서도 선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 단기선교사를 따놓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생기면서 저의 생활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권고나 주변의 생활들이 이미 저를 코너로 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는 마음의 소리가 저로 하여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마구 밀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온 후 문화충격을 받은 것이 있나?

이순주 처음 한국에 와서 받은 느낌은 소비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영어도 불편을 모르고 살았던 선교지와는 달리 이 곳은 너무나 풍요롭고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치에게 사치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간성했던 저였지만, 다시 이곳 문화와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선교에서의 겸손한 삶을 이곳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저의 과제입니다.



허락하신 사랑을 찾아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적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결혼 등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속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체들의 부작용과 손실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 가결연 나눔모임에서는 가정, 결혼, 연애의 바른 성경적 관점을 배우고, 건전한 교제의 풍토를 조성하여 이런 문제들에 성경적으로 대처해 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4월 4일(수) 저녁 8시 충현교회 제2교육관에서 등록을 하던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1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젊은 시기에 누리는 고민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 ♥ 일 시: 2021년 4월 4일(수) ~ 4월 5일(목)
- ♥ 장 소: 충현교회 제2교육관
- ♥ 등 록: 4월 4일(수) 저녁 8시 충현교회 제2교육관 앞
- ♥ 회 비: 1인당 5,000원
- ♥ 준 비 물: 성경, 찬송, 세면도구 등등
- ♥ 참가대상: 교회내 젊은이들로 성경적인 가정관, 인생관을 확립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 사진 왼쪽부터 오경진, 한정은, 이수경, 권영일, 박수인, 이순주 단기평신도선교사

선교지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권영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을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거의 다 여성 선교사님들이어서 청일정으로서의 외로움, 즉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부족으로 현지인들도 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에 왜 왔나?' 하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단에서 맡은 일은 컴퓨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까지 컴퓨터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년 여 동안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억눌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실체중심의, 업적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배운 점은?

한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유익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대한 인종적 편견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종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일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과 후에 선교에 대해서 달라진 생각은?

이수경 선교지에 나가기 전까지는 선교에 한 심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더 큰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선교지에서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선교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나의 재능, 건강, 경험, 지식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나가고 준비하는 자제들에게

해 주기로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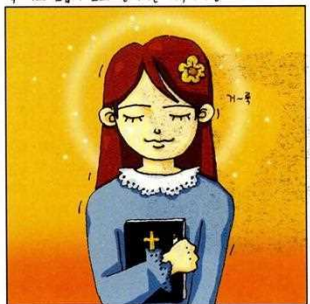
박수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준비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역을 할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종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선교지에 가계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종적인 부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힘들게 됩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들 중 어느 누구도 선교지로 나가기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을 동역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서 단기선교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만평

글: 그림장민 / (min74@jaangminn.com)

혹 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못하니... 되돌아 보십시오.



혹 그만! 죄나 그만! 죄나 그만! 죄나 그만!

구역 탐방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래요!

양오실



1교구
국기 5, 6구역

탐방대상인 국기구역의 구역장을 만나 탐방소식을 전하니, 기도제목이 늘었다고 웃으셨다. 부담을 가질 것은 없고 구역에매 때 한 식구가 더 참여한다 생각하시라며 만만 장소를 미리 약속해 두었다. 당일에 약속한 장소에서 집사님을 만나 집에 들어서니 권사님과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직장인들도 잠시 예배에 참여하여 오셨다.

찬송을 시작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함'의 주제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 제림에 대해 공과공부를 하였다.

자녀됨과 후사됨을 감사하며 왕의 식탁에 초청된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를 성전에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먼저 회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갖게 하신 은혜를 다시금 가슴 깊이 감사드리시는 식구들을 볼 수 있었다.

우 집사님은 어려서 든든 성찬에 대하여 예수의 몸이니 씹지 않고 꼭 입에서 녹여서 모시었다고 성찬에 대한 모친의 기억을 떠올리셨고, 구역장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즐겁고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다.

근대에 세례받은 임 성도님은 "나도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는구나!"라며 깊은 감사를 고백하며, 영주를 팔에 차고 있을 정도로 신앙에 무지한 군복무중인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요청을 하셨다.

집사님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지 않았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되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세례받던 사람들이 쫓다발을 받고 사건을 겪는 것을 보고 부모님의 착시를 만났었던 사실을 후회하면서 3월3일 성찬식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다고 했다. 전구역 식구들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들을 위해서 통성기도를 드렸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한 구역이 작년부터 부흥되어 이제는 8~10명으로 늘어나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직업을 가진 구역식구들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동감이 넘쳤다. 이왕이면 사건을 잘 짚어 달라는 주문도 들어왔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흠여지는 이 구역에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임하시길 원하며 가버온 마음으로 돌아왔다.

(임동태 기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김양현 집사(여75세) 신부전증으로 판상동맥 질환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장옥경 권사(여98세)** 골절 수술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관 605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길중 성도(남41세)** 간암, 직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 452호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나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7교구 박종옥 성도(남57세) 장유작중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교구 심정태 성도(남44세) 누나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마치고 삼성의료원 7053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13교구 황순기 집사(여48세)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근위축성척삭증으로 천정에 서 요양 중입니다.

17교구 김복미 성도(여39세) 5년전 유방암 수술 치료후 패 및 뇌까지 암이 전이되어 몸서리칠 중에 있으며

이승기 성도(남40세) 소방관으로서 화재동화제고로 전압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깨어나 치료중이니 쾌유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잊지마시라! 기쁘게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세 창' 성도를 소개합니다

결혼 후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합니다. 타교회에서 봉사하던 아내(김문숙 새가족)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은 두 분이 나란히 새가족부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세 창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소은 · 서승희' 모녀를 소개합니다



문소는님은 어릴 때와 결혼후 선배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잠시 다녔다고 합니다. 목사님인 동생과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인지 믿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중 김복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세계교인인 딸(서승희)과 함께 새가족부에 참여하고 있는 문소는님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따뜻한 이야기

나의 소망은 어디에...

변 경희 (권사, 12교구)

매주 월요일이면 S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여름, 몸이 두터운 날이었다. 원복실에서 700호실 이○○ 환우를 소개받았다.

"처음 뵈었습니다. 충현교회 ○○○ 권사입니다. 뭐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장마른 몸에 겹고 누런 얼굴이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다리를 안마해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래야 치료도 잘 돼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지시와 함께 차트를 건넸다. 링거를 옮기고 환우를 휠체어에 옮겨 앉히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복도를 지나 검사실로 향하는데 링거가 조정기 서둘러 꽤 힘이 들었다. 병실에 돌아와 환우와 두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권능의 하나님, 이 말의 병을 고쳐주소서." 함께 기도드릴 때 환우는 뜨거운 눈물을 손등에 떨구며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저는 다음 월요일에 또 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십시오."

"요즘 시골에서도 막 구하기가 어렵데요. 막 속을 파내고 복어를 넣고 끓여 먹으면 복수가 차지 않는다는데..."

그 길로 경동시장에 가서 가까스로 막 파는 곳 한 군데를 찾아냈다. 수박 크기만한 박을 사서 병실에 갖다 드렸더니 환우는 좋아하며 베개 밑에서 만만 찌리 두 장을 내었다.

"안 받으시면 이거 안먹겠어요." "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월요일에 뵈겠습니다." 사양하며 병실을 나왔다.

2주 후 월요일, 병실 침상엔 함께 기도했던 그 환우 분이 계시지 않았다.

"아, 그 분 소천하셨습니까." "아름과 고통도 없고, 슬픔과 가난도 없는 곳,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그 환우를 생각하며 갑작스런 이별에 잠시 서운한 마음을 달랬다.

월요일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며 또 전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되니 '또 그분을 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는데 매도 적지 않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생을 마감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롭고 처절하게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참 평안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의 위탁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매주 월요일, 이 부끄러운 내게 주셔서 더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이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병실을 향한다.

거울

창은 신 (중동1부 교사)



중동1부 친구들을 보면서 '저 시절이 참 좋았지' 하는 생각이 들린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다. 비록 말쑥도 부리고 장난기도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아직 때를 지 않은 귀한 크리스탈 그릇같은 중동1부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보람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감격과 호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제가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중동1부를 찾았을 때, 중동1부 친구들을 가르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막상 친구들 앞에 섰을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이 친구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동부 교사로 3개월째를 보내는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중동1부 친구들 앞에 서야할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아이들 앞에 서있는 내 모습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투영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통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몸소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하심인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와야 하고,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울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의 모습으로 기거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무리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피박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열어서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어린 생명을 키워내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올바른 '거울'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에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과연 중동부 아이들이 설교자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경청할까?'라고 이런 생각을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서 얻어낸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교사가 열심인 준비를 하고 공과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경우이며, 다른 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 충실히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과도 아이들을 만나자 하는 경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핑계 삼을 때일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빠져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절름을 했을 것이다. 그때 그 시절에서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할지도 모르지만 얼마 후면 그 부정적인 답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들의 귀는 날카롭다. 교사의 말투와 특징을, 몇 분 만나보아서 지적할 수 있거나 심지어 흉내도 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중동 2부에서 목사님이나 나의 말투를 이미 흉내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정보 아닌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날 교사의 성경강의를 들으면서 과거가 어떠한 영적인 준비 자세로 임하여 그 공과를 준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가 어떤 준비로 임하였는지 어떠한 영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아이들이 감히 교사의 가르침을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절름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설교자와 교사에 의해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인다. 그것도 아주 민감하게 말이다. 당장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느낀다. 그건 아마 우리의 예배와 성경공부시간이 인간이 만들어 주창하는 시간이 아닌, 성경에서 주창하시는 시간이기때 그걸 같이라고 나는 믿는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토해 한 마디를 말하더라도 그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가르치는 그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 상에서 그날 가르치자니 말을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반대로 교사의 설거는 사랑과 열정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아무 것도 안다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영향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 이것(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우리의 아이들)를 구원하라' (디모데전서 4:16).

김정겸 (중동2부 전도사)

미래의
의료신교사

김소영 (중동3부)

할렐루야

솔직히 기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감동은 많이 했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수련회 기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안으신 주님! 이제까지 복음 안에 충실히 거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비록 죄인인지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의료신교사'의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의료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길이 제가 같이 갈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은 모습과, 자신들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온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말씀에 듣는 가운데 의료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뜻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많이 기도해주세요.

겨울수련회

전은혜 (중동3부)

겨울수련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은혜야, 16살 중동3부에서의 겨울수련회는 단 한번뿐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참석하렴. 하나님은 반드시 네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거야.'라는 신장님의 말씀을 듣고 겨울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다나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 지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순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박 3일은 짧지만 내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분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물음은 누구나 던져보는 삶의 본질적 물음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덕목을 열거한다. "종말도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라...[빌4:8] 그러다만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을 사로잡는 이 고민의 실마리를 풀러 고 공중 날았다.

그런 와중에 서둘러 교수이신 장정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자각과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흔히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기도한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하여 태어난다. 첫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다. 둘째, 우리는 받은 사랑을 누리고 즐기 위하여 태어난다. 셋째, 우리는 누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전달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 삶의 주동적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창조자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4:16]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해 주고 있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태어난 나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고 감사드리면서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애써야겠다는 다짐을 하려 고인으로부터 벗어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3:16]"

(김심학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22

1. 재건교육과 내의 학년도 구분 교육과 내에 학사가 구분되며 학사 구분 시에는 내의 학년도와 학사 구분 일체를 학년 구분으로 일체로 구분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비금 안내
다문화지원(25년) 1부 5만 예치해 주었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바울 11장 1절 이해
말씀 : 오순 고교요양 후
질문 : 교육과 21교로
답변 : 바울 12장 1절 이해
말씀 : 오순 고교요양 후
질문 : 영아분류
답변 : 바울 13장 1절 이해
말씀 : 오순 고교요양 후
질문 : 교육과 35교로
답변 : 바울 14장 1절 이해
말씀 : 오순 고교요양 후
질문 : 교육과 41교로
답변 : 바울 15장 1절 이해
말씀 : 오순 고교요양 후
질문 : 교육과 47교로 이해
답변 : 바울 16장 1절 이해

1.2

- [illegible]

34

- | | |
|--|--|
| 1. 비엔나 2차 회의 개최
일시: 1918년 11월 11일
장소: 스위스 제네바 | 18.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18년 11월 11일
장소: 프랑스 컴피엔느
(협정서: 300조, 700조) |
| 2. 비엔나 4차 회의 개최
일시: 1918년 12월 1일
장소: 독일 뉘른베르크 | 19.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5월 8일
장소: 프랑스 파리 |
| 3. 비엔나 5차 회의 개최
일시: 1919년 1월 19일
장소: 프랑스 생제르맹데리 | 20. 제3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9월 2일
장소: 일본 도쿄 |
| 4. 비엔나 7차 회의 개최
일시: 1919년 4월 9일
장소: 스위스 루체른 | 21. 제4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9월 2일
장소: 일본 도쿄 |
| 5. 비엔나 8차 회의 개최
일시: 1919년 4월 26일
장소: 스위스 루체른
(구약성경) | 22. 제5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9월 2일
장소: 일본 도쿄 |
| 6. 비엔나 9차 회의 개최
일시: 1919년 5월 7일
장소: 스위스 루체른 | 23. 제6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9월 2일
장소: 일본 도쿄 |
| 7. 비엔나 10차 회의 개최
일시: 1919년 5월 26일
장소: 스위스 루체른 | 24. 제7차 세계 대전 종전
일시: 1945년 9월 2일
장소: 일본 도쿄 |

- | 새 가 | | | |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 221 | 하승훈 | 2 | 청년1부 |
| 222 | 이희화 | 1 | 청년1부 |
| 223 | 염현옥 | 4 | 루디아 |
| 224 | 이정임 | 5 | 청년2부 |
| 225 | 정철길 | 8 | 청년2부 |
| 226 | 김강미 | 8 | 청년1부 |
| 227 | 유옥순 | 11 | 예스21 |
| 228 | 이정숙 | 12 | 청년2부 |
| 229 | 송수현 | 15 | 청년1부 |
| 230 | 조현미 | 15 | 대학부 |
| 231 | 허영자 | 15 | 청년1부 |
| 232 | 정영미 | 17 | 루디아 |
| 233 | 신은선 | 19 | 청년1부 |

장소: 교육관 306호

- [illegible]

- 음향음질 안내**
시간 : 매주 수요일 9:30~11:30 수강료 : 3만 원(3개월)
개강일 : 4월 1일(수) 아간 직장인(반수, 19:00~21:00)
문의 : 송현복지원(☎ 564-8885 내선 3번)
- 정재민 무료치과 진료**
시간 : 1, 2, 3, 4부 주 1회요일 14:00~16:00
진료대상 : 강남대 대학원, 수도권 대학
진료과목 : 보철, 내과, 치정, 치주, 소아, 외과
문의 : 송현복지원(☎ 564-8885 내선 3번) 치과 진료
(충지선 사원에게 전화로 예약하여 진료료 받으실 수 있음)
- 송현복직장 직원 모집**
모집분야 : 장선보치과복합치과 2급(남녀 1명),
부 - 출생전반역전 근무자 남녀 1명, 그룹종교사
재출생자 : 자기관제제, 이력서, 최종학교 성적증서
서류마감 : 2001. 3. 25
문의 : 송현복지원 직원송(☎ 564-8885 내선 106번)

- | 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 |
|--------|-----|-----|----|-----|
| | 234 | 김도식 | 19 | 청년1 |
| | 235 | 김순옥 | 19 | 대학학 |
| | 236 | 장근혜 | 19 | 대학학 |
| 유족(5) | 237 | 장규수 | 1 | 청년2 |
| | 238 | 장성훈 | 6 | 부다 |
| | 239 | 김혜진 | 19 | 대학학 |
| 유족(2) | 240 | 서수희 | 19 | 청년1 |
| 친인(14) | 241 | 김기영 | 19 | 대학학 |
| | 242 | 김성경 | 19 | 청년1 |
| 친할(15) | 243 | 김성옥 | 1 | 교역 |
| | 244 | 송요한 | 1 | 교역 |
| | 245 | 송세훈 | 19 | 청년2 |

194

- [illegible]

- (과장)
 0개월
 수업시간
 1회 5시간 수업 : 매주 목
 4. 등록비 : 대학기 1만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장(등록육체
 나. 주민등록등본 1장
 다. 병역합판 사진 1장 라
 6. 서류 제출 기한 : 2002. 2.
 7. 제출처 : 교육문화연구원
- 동서울산제 제50회 정기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
 ① 투사 고지 청원(강도사

- | | | |
|------------------|-------------------|--|
| 인도자 | 강목희(14)
최태호(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사보조교과목 청원 ● 신학 개혁신구천 청원 ● 제4매김(2001년 9월) ● 집수일 문의: 사무국 |
| 이영환(2)
장임구(1) | | <p>2001년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성기간: 2000년 결산 2. 대성기간: 각 위원회 (단, 남과 각 전도회는 결 결원, 이며, 학원 등 동 3. 제출서류: 시산표(2000년 결산, 200 증 중생, 신제 헌금 등 4. 감사실시기간: 2001 5. 감사실시장소: 제1교 |
| 송윤표(19) | | |

회 특강 / 월례회

5:30) 장소: 갈릴리움(식사·예수과거를

(墓地)이장 기한연장

유족분들의 협조로 이장이 많이 완료
같은 요를 아래의 기간까지 이장하여
감함
충현동산 031)764-9617

의 옷 나누기

계 '사랑의 옷 나누기'를 하고자 함
입으시는 옷이 있으시면 실업인 전도
곳이 세탁해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

경로대학 1학기 학사

- 인 자로서
지원자
(중심은 교회에서 제공)
원
1)
출비: 10,000원
3.22
윤관(207호), 경창전도회 사무실

회에 각종 고시신청서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금)까지
과(☎ 552-8200 #412)

새·가·죽·을·화·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221	하승훈	2	청년1부		254	김도성	19	청년1부	
222	이희화	1	청년1부		255	김준호	19	대학부	강북회(1)
223	이정민	5	청년2부		256	강은혜	1	대학부	희대목회(1)
224	이경일	5	청년2부	김종욱(5)	257	장규승	1	청년2부	
225	정철경	8	청년2부		258	장광수	6	주미아	이영철(2)
226	김광미	8	청년2부		259	김혜린	19	대학부	강림지(1)
227	김민서	8	청년2부		260	신은주	19	대학부	
228	임장욱	12	청년2부	홍수진(4)	241	최기영	19	대학부	
229	신재훈	15	청년2부		242	김정철	19	청년1부	송옥호(19)
230	조한미	15	대학부	김영민(15)	243	김성숙	1	교역자	
231	박지현	15	청년1부		244	송효하	1	교역자	
232	정영숙	19	주미아		245	송효준	19	청년2부	
233	신윤상	19	청년1부						

크치수 시늉기



2001 강원체육대회
개도회 및 경기설마치 마쳐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구 나누어 줘

월 1일, 2021 춘천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주일 오후 3시, 갈밀리출에서 기도회 및 경기 회의를 가졌다. 경기실형제들은 각 팀의 본부위원들이 전원 모두 가운데 경기 진행을 맡아 승운을 집사가 주위에 사용할 기구 및 모형을 준비하여 시청 화가면에서 본부가 가운데 있다. 전 중족을 볼 때 큰 교육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중족들로 구성 있어서 한참 재미를 꽤 볼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할 것이라며 기대를 갖게 했다.

이 경기장비를 가운데 '개개동무 릴레이'와 '굴렁쇠 릴레이'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도 미리 기구를 나누어 주어 각 팀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원리에 많은 비좁은 두에 각 팀의 불꽃놀이 응원가를 대대해 만든다.

본부 팀에서는 경기실형제들과 동대 팀별 모형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여 한 주장을 보냈 중족팀인 지난 13일(화) 저녁에 모임을 갖고 각 중족별 경기대책을 세우고 전체 일일 발 원에서 팀을 나누어 묶어 나머지 팀을 대항하고자 모든 경기팀, 동원팀을, 경기 필요한 시는 준비회까지 위해 실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원들로 책임을 분담하여 본격적인 체육 대회준비로 들어갔다.

한 본부 인원들은 지난 16일(금) 금요일집회 후에 모여 모든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실제적 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월 8일(월요일), 오후에는 각 팀에서는 경기나승까지 우리 자리에선 전체실형회를 가질 게 다. 따라서 각 팀에서는 주일 25일(주일)까지 중족별 선수명단을 확정하여서 기획본부에 제출한다.

이외에도 김성기

- | ■ 사무장로 | | ■ 위임장로 | | ■ 심정간 | |
|-------------------------|-------------------------|-------------------------|-------------------------|-------------------------|-------------------------|
| 김의철
장로
오직국
목회자 | 조성근
장로
이병학
목회자 | 김은호
장로
윤인현
목회자 | 노영현
장로
최대원
목회자 | 이홍성
장로
이준경
목회자 | 이승수
장로
이종철
목회자 |
| 윤필성
장로 | 강종호
장로 | 오정현
장로 | 이 훈
장로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남진우
목회자 | 서종석
목회자 | 정은우
목회자 | 김정영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김정진
장로 |
| 김종구
목회자 | 조진태
목회자 | 김종구
목회자 | 최우길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김진재
목회자 | 이병학
목회자 | 차진식
목회자 | 김재복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박영식
목회자 | 김정남
목회자 | 이종석
목회자 | 윤성철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이희현
목회자 | 박민진
목회자 | 김진관
목회자 | 이병목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안종욱
목회자 | 최경환
목회자 | 임두원
목회자 | 이홍성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최기흥
목회자 | 이재관
목회자 | 전홍용
목회자 | 전종문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이정우
목회자 | 김단우
목회자 | 황인철
목회자 | 손정현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한승규
목회자 | 김영서
목회자 | 정종수
목회자 | 김환기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원용철
목회자 | 이영삼
목회자 | 안도현
목회자 | 황미란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김동형
목회자 | 최은우
목회자 | 이재민
목회자 | 박덕영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이대식
목회자 | 전대부
목회자 | 박용규
목회자 | 권영목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
| 최성현
목회자 | 전대부
목회자 | 박용규
목회자 | 권영목
목회자 | 이승수
장로 | 정현민
장로 |